



회사원문

**까스텔바작, 대표이사 대행에 권영승 現 형지 에스콰이아 대표이사 선임**

▶ 형지 에스콰이아 흑자 전환 경영 바탕으로 (주)까스텔바작 성장에 박차

<2020-02-24> 프랑스 오리지널 글로벌 패션 브랜드 (주)까스텔바작(308100)은 백배순 대표이사의 사임 예정으로 현 형지 에스콰이아 권영승 대표이사가 까스텔바작 임원으로 선임됨에 따라 2월 17일자로 대표이사의 직무를 대행한다고 24일 밝혔다. 권영승 전무는 올해 3월 예정된 정기 주주 총회 이후에 정식으로 (주)까스텔바작 대표이사로 선임될 예정이다.

특히 권영승 대표이사는 형지 에스콰이아가 패션그룹 형지에 인수된 후 전략적인 경영 효율화 추진으로 인수 4년 만에 첫 흑자 전환을 성공시켰다. 취임 이후 사업 조직을 재정비하고 온라인, B2B, 홈쇼핑 등 신유통채널 강화 전략을 바탕으로 기업의 체질 개선 및 변화에 주력했으며, 고질적인 실적 악화의 요인을 분석해 개선해 나가는 등 경영 효율화를 추진했다. 또한 새로운 유통 채널에 맞는 전용 브랜드 런칭과 브랜드 재정비를 통해 브랜드 가치를 제고하는 동시에 기업운영의 효율성을 강화시켰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 때문에 업계에서는 권영승 대표이사가 (주)까스텔바작의 대표이사 대행으로 선임된 것에 대해 상장 이후 사업 성장을 본격화해 나갈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권영승 대표이사의 선임으로 까스텔바작의 경영 효율화를 강화하는 동시에 브랜드 확장성을 통해 한 단계 도약하는 시기에 접어들었다는 분석이다. 업계에서는 새로운 유통 채널 등 패션업계의 변화에 유연하면서도 전략적으로 대응해온 권영승 대표가 점차 세분화되고 있는 패션비즈니스의 수요 및 유통 채널의 변화에 대응하면서 경영상의 시너지 효과를 일으킬 것이라는 기대감도 흘러나오고 있다.

한편 (주)까스텔바작은 2020년을 까스텔바작 변화 원년으로 보고 주력사업인 골프웨어 부문에서는 매스티지 골프웨어 브랜드로 외형을 확대함과 동시에 해외 진출 및 사업 카테고리를 확장하면서 토탈패션 브랜드로 거듭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 권영승 (주)까스텔바작 전무이사 (現형지 에스콰이어 대표이사)